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가장 자기다운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

세상은
춤추게 되고,
드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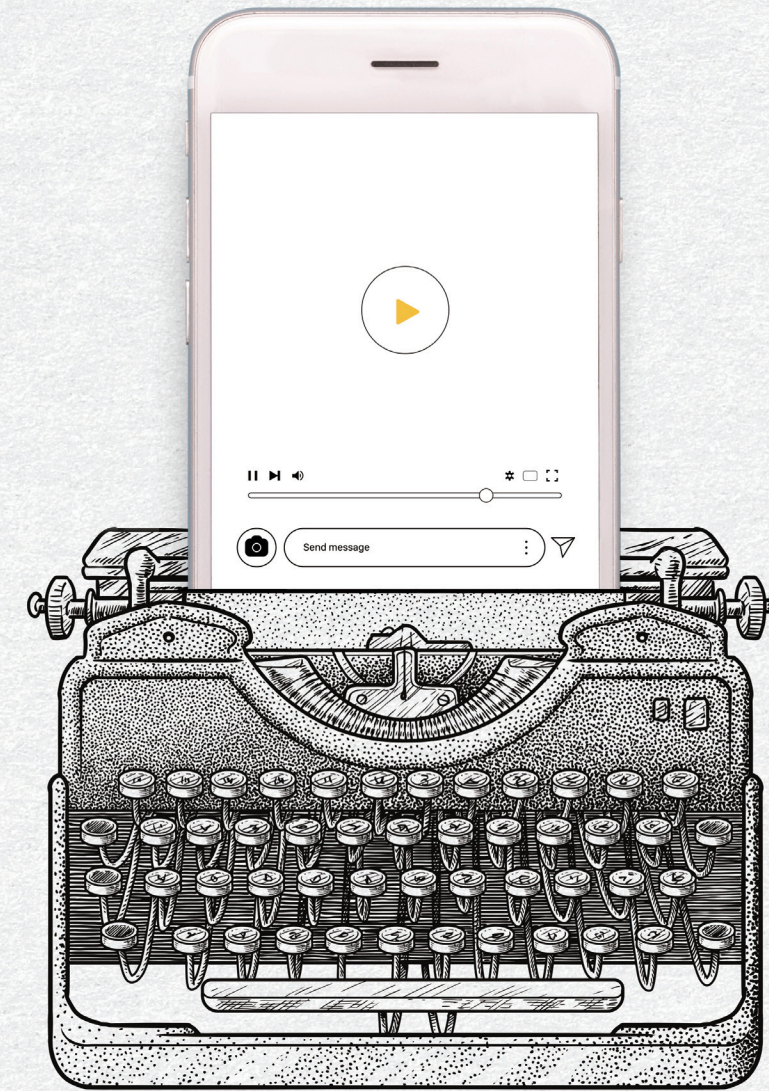
빛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

KEPCO

2021 03 / VOL. 573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세계를
확장
시킨다



KEPCO

표현주의
TIME TO SHOW



THEME 표현주의

- 04 TREND 현대인의 '자기표현' 욕구, 판을 만났다
- 06 CULTURE 코리안 스웨그(SWAG) - 우리 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 08 GUIDE 명함 대신 '프사'로 보여줄게 - 소셜 미디어로 '나'를 표현하는 법

PEOPLE

- 10 길 위의 풍경 전라남도 강진 & 강진전력지사
- 14 함께 배워요 천안지사 '농수버들' 동호회원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
- 18 맛남의 광장 졸깃, 고소함이 폭발하는 대구의 맛! 막창
- 20 가족사진관 인천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이경희 대리 가족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고재성 차장 가족
- 24 Zoom In 신기술 기자재 실증으로 국내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왕곡 T-플랫폼 실증시험장

ISSUE

- 26 알아봅시다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화두, 탄소중립
- 28 Issue Scanning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녹색 프리미엄 시행
- 32 KEPCO NEWS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4.1조 원 흑자 외
- 34 테크 리포트 풀잠 재워드립니다 - 수면 위로 떠오른 수면 산업
- 36 명확로 보는 심리학 움츠러든 희망을 다시 바라볼 때
- 38 방구석 인문학 조선 시대의 '먹고사니즘' - 신비로운 직업 사전
- 40 덕후 길라잡이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마켓' 놀이
- 42 인포 라운지 '아인슈타인 급' 기억력을 위한 특급 비책

COMMUNITY

- 45 ON AIR
- 46 KEPCO 버스킹
- 47 간식비를 쏜다!
- 48 人STAR★GRAM
- 50 구독의 이유
- 51 힐링 메시지

TIME TO SHOW

표현주의



누구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예전부터 '살면서 책 한 권쯤 남기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 이도 적지 않았죠.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게 된 이후
이런 바람을 이루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 '수익을 내는 유튜버' 비중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걸 보니 그간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신 있게 말하고, 경계 없이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내보여야 할까요?

Time to show

현대인의 '자기표현' 욕구,
판을 만났다

self expression

과거 “내가 살아온 이야기만 해도 책 한 권은 나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책을 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는 무수하게 널렸고, 오프라인에서 책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자기표현’ 욕구는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을까?

물 만난 고기 = 소셜 미디어를 만난 범인(凡人)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좋아하는 것을 널리 표출하는 일반인이 많아졌다. 취미를 파고들어 전문가가 된 사람들도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글을 쓰다가 브런치에 쓰게 되고, 출판사와 계약해 책을 내기도 한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다가 전문적인 의뢰를 받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웹 소설을 쓰거나 유튜버가 되는 사람도 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도 자신의 욕망이나 흥미를 좇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20세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표현하는 시대가 된 것은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이 매우 중요했다. 인터넷 이전을 떠올려보자. 개인의 주장과 생각을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다. 작가라면 등단을, 기자라면 언론사에 입사를 해야 했고, 학자는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를 통과해야 했다. 그래야 공인된 매체에 시와 소설을 쓰고, 기사를 쓰고, 논문을 쓸 수 있었다.

인터넷은 지식과 매체의 민주화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 무한대의 정보가 있고, 대체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누구나 매체를 가질 수 있게도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칭하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매체를 활용해 세상에 ‘발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부활을 예고한 ‘싸이월드’가 시초였다. 자신만의 공간이자 무대인 ‘미니홈피’를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간 장소나 먹은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고 순간의 감상이나 생각들을 적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설정해 취향도 드러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었다. 이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 속속 등장했다. 블로그는 긴 글,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짧은 글,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틱톡은 동영상 그리고 페이스북은 친구를 맺으면서 글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최근에는 오디오로만 대화를 나누는 클럽하우스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문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일반인이 수십, 수백만의 팔로워를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왜 인기가 좋은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역사상 가장 자아가 비대해진 시대

그렇다고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일컬어 ‘인스타그램은 자랑질, 트위터는 지적질, 페이스북은 친목질’이란 말이 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화사하고 풍요롭다. 다들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비싼 물건을 소유한 것만 같다. 페이스북에서는 유명한 사람 누구를 만나서 찍은 사진을 올린다.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렇게 표출되는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즐거운 것일까’. 반대의 경우는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피로를 토로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에 보이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중국에서는 회비를 모아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빌리거나 고급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회원이 돌아가며 사진을 찍는 모임이 생기기도 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에서는 다른 사람이 쓴 글과 찍은 사진 등을 훑쳐다가 자신의 것인 양 과시하는 일도 벌어진다. 결국 겉으로만 보이는 허상에 끌려 다니는 격이다.

자유로운 표현에서 오는 부작용도 따른다. 누군가 한 말에 대해 고투리를 잡아서 일제히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주로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고 조롱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싫은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하며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 혹자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자아가 비대해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신이 대단하다는 자의식 과잉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롭고 소신 있게, 나를 보여주고 있는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우리 그동안 자기 얘기를 드러낼 곳 없었던 이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목소리를 통해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귀한 정보를 얻었고, 이들의 삶에 대해 공감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독선과 아집이다. 나만이 옳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뭔가 거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나의 생각도 소중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우선 말해야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소신 있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각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한 걸음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음악계에선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융합이 눈에 띈다. 한때 유행했던 퓨전 국악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경험한 세대가 뮤지션으로서 자신들만의 것을 선보인 것이다. 판소리 가락에 화려한 비주얼 이미지와 춤을 가미한 밴드 '이날치', 한국의 굿 음악을 밴드와 디제잉으로 뒷받침하는 추다혜차지스는 '우리 것'을 '첨단의 방식'으로 표현해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코리안 스웨그^{SWAG}

우리 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TIGER IS COMING

LEENALCHI



BTS와 블랙핑크 급 비주얼과 사운드

"동영상 누적 조회 수 5억 뷰!" 언뜻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보이 그룹이나 걸그룹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동영상을 만들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날치를 소개하는 MBC <라디오스타>의 MC 멘트였다. 방송에 출연한 이날치의 두 보컬, 권송희와 신유진은 다른 출연자들 못지않게 흥미로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새 음악 '여보나리'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션이 아닌 이상,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신곡을 먼저 공개하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날치는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받으며 이 일을 해냈고, '대중가요이자 K팝이란 무엇인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셈이 되었다.

이날치, '한국의 얼'을 독창적으로 해석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삽입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인기 아이돌과 인기 배우들도 쉽게 꿰차기 힘든 CF까지 찍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점은 이날치의 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얼'을 활용하는 특별한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이 밴드는 판소리를 바탕으로 팀의 콘셉트를 잡았고, 여기에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독특하지만 때때로 기괴하게 다가오는 춤사위를 더해 자신들의 독창적인 지향을 보여주었다. 이 팀에는 안이호, 막내 신유진 외에도 어어부 프로젝트

의 장영규 음악감독, 이미 수년 전에 국악의 특징점을 내세운 음악으로 해외 음악시장에서 먼저 주목받았던 밴드 쌍쌍의 드러머 이철희, 국악신(scene)에서 꾸준히 판소리를 선보이던 권송희, 이나래와 같은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앨범 <수궁가>를 통해 '범 내려온다'라는 후크(hook)가 중심이 되는 곡부터, 판소리의 장점을 한껏 살린 '악성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와 같은 곡들까지 들려주며 판소리라는 장르의 변주를 마음껏 시도하며 '남자한 풍악 소리 수궁이 진동(악일레라)'하는 수준의 인기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

추다혜차지스, 굿판으로도 음악적 변주가 가능하다고?

이날치 외에도 쌍쌍의 보컬이었던 추다혜가 만든 추다혜차지스의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추다혜차지스는 이날치와는 달리, 서도민요와 굿판의 음악인 무가를 뒤섞어 훨씬 더 기묘한 공기를 조성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굿판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독특한 밴드의 음악 세계는 이날치가 그랬듯 한국 대중가요와 K팝이라 불리는 장르에 한층 도발적인 태도로 질문을 던진다. 마치 '이런 음악 들어봤어?' 혹은 '이런 음악 봤어?'라고 직설적으로 묻는 듯한 영상 속 추다혜의 눈빛은 신명 나게 흔드는 방울 소리와 섞인 펑크, 레게, 덤(dub) 등 많은 장르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중을 홀린다. 어쩌면 아무도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굿판의 노래를 가져와 실제로 굿을 하는 현장에 와 있는 듯이 자유롭게 가사를 바꾸고, 귀신을 불러내듯이 몸을 자유롭게 흔드는 그의 모습은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라는 이름으로 다소 낯설고 오싹했던 한국의 얼을 대중 앞에 선사한다. 펑키한 리듬 아래 간혹 두드러지는 베이스의 소리는 마치 이 음악을 들으며 두근대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korean swag



'내 삶의 예술가'가 되라고. 전 세계를 향해 이 두 팀의 음악을 들려주며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는 '코리안 스웨그'의 양상은 이토록 건강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향유하는 이들까지 '힙'하게 만드는 젊은 예술가들의 표현법

말은 곧 표현이다. 이날치와 추다혜차지스의 가사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과거의 것과 트렌드를 마구 뒤섞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시대의 말이 표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밖에 없게 된다. 두 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늘 지루하다는 평가 아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혹은 완전히 변방에 있었던 음악을 마음껏 변형시킨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의 등장과 부상은 한국 대중음악의 놀라운 확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동시에 두 팀의 활동 양상은 스스로에 대한 PR

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상대방의 점수를 매기는 2021년의 세계에 대한 매우 급진적인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날치와 추다혜차지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음악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소셜 미디어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화려하고 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예술가'가 되라고. 전 세계를 향해 이 두 팀의 음악을 들려주며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는 '코리안 스웨그'의 양상은 이토록 건강하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한국의 대중가요이자 K팝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넘어서서, 내가 나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독창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음악이 입은 새 옷만큼이나 우리도 멋진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Social Media



그래서 나는 SNS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어떤 SNS를 선택하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나를 어디까지 드러내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게 좋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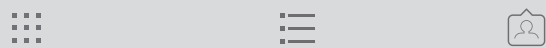
— 나의 사생활이나 경험, 관심사를 드러내고 싶은지, 만약 드러내고 싶다면 어디까지 드러내고 싶은지도 생각한 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자.

—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온라인에서 건강한 연결을 만든다. 좋은 댓글 하나를 달거나 작은 이모티콘 하나를 누르는 것도 소통이며, 이것은 SNS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즐거움을 얻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SNS에서의 반응에 너무 몰입하지 않는 게 좋다. 댓글이나 '좋아요'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바라는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명함 대신 '프사'로 보여줄게

소셜 미디어로 '나'를 표현하는 법



개인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목적이나 관심사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신만의 콘텐츠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사지원서에 소셜 미디어 주소를 기입하라거나,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주제로 이를 잘 운영해왔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회사들도 있는 걸 보면 소셜 미디어는 무척 효과적인 자기표현 도구임이 분명하다.

'부캐(부캐릭터)'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특집에 따라 유산술, 유드래곤, 지미유 등으로 정체성을 달리 설정하는 모습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 말은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기도 한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관심사와 특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런 다양한 면을 타인에게 드러낼 기회는 의외로 많지 않다. 비즈니스 미팅으로 만난 사이라면 고작 몇 분의 대화와 명함 한 장으로 서로를 소개할 뿐이다. 같은 회사의 동료라고 해도 일하는 모습 외에는 알기가 어렵다. 조금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 역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라의 사람을,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스타그램

'일상 보여주기'부터 '영감 수집'의 도구로!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게시물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 기반의 SNS라 '전문성'보다는 관심사와 일상을 드러내기에 더 알맞다. 어떤 날은 맛있게 먹은 음식 사진을 올렸다가, 어떤 날은 즐겁게 읽은 책 사진과 간단한 감상을 공유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만약 실명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나의 일상을 보여주기 부담스럽다면, 콘셉트를 잡아 계정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콘셉트는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을 준 글이나 사진 등을 모아 올리는 '영감 수집' 계정이다. 읽은 책의 표지 사진을 찍고 감상을 남기는 식으로 독서 계정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새롭게 계정을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내가읽은책' '#오늘의영감' 등으로 해시태그를 활용해 비슷한 성격의 게시물을 하나로 묶는 방법도 가능하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나의 이력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법

MZ 세대는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지만, 여전히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식 중 하나로 유효한 SNS가 페이스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으로 사용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지인이나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맥,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팔로우한다. 주로 각자 몸담은 업계 기반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올리기에겐 적합하지 않지만, 일과 관련한 노하우나 소식 등을 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링크드인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개인적인 글을 쓰는 SNS라기보다는 '회사 밖에서 만드는 나의 이력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동안 어떤 경력을 거쳐 왔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저서가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구직 상태인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업데이트해두면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다.



블로그, 브런치

경험과 전문성을 차곡차곡 아카이빙 & 공유

공유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일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 고요한 경험을 끄적 끄적 숨기는 것보다 콘텐츠로 잘 정리해서 타인과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돈된 글을 통해 나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면 블로그나 브런치를 추천한다. 블로그는 조건 없이 바로 개설할 수 있고 브런치는 심사를 거쳐 '작가'로 등록되어야 글을 쓸 수 있지만, 어떤 플랫폼에서든 중요한 것은 주제를 '기획'하는 일이다. 아무 글이나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면 가장 좋을지, 그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할 때 어떤 목차로 쓸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하고 연재를 시작하면 좋다. 나에게서 사소하게 느껴지는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클럽하우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더 가까이 만나기

클럽하우스는 지금 가장 뜨거운 SNS다. 오로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채널을 개설할 수 있어서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 모임이나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 이야기 모임부터, 직무/업계별 소식과 노하우를 나누는 모임까지 매일 다양한 채널이 열린다. 이 중에서 관심 가거나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의 모임이 있다면 스피커로 참여해볼 수도 있다. 나의 관심사와 전문성을 말로써 알리고, 업계나 더 나아가 업계 바깥의 사람들과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배의 땅이라 했다. 정약용이 천주학쟁이로 몰려 유배되어 온 땅. 다산이 강진에 머물던 18년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그중에는 경세유표, 흙흙신서, 목민심서도 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소외됐던 강진은 실학의 거장, 정약용 선생의 흔적을 곳곳에 품을 수 있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그의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강진을 문화유산 답사기 제1장 1절로 꼽지 않았던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절, 유배지인 강진에서 수백 권의 저서를 저술하며 학문적인 꽃을 피워낸 정약용 선생. 가깝다던 봄이 멀게만 느껴질 때 강진으로 향해 보자.

전라남도 강진 GANGJIN

강진 & 강진전력지사



백련사 동백나무숲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산 자락의 백련사 동백숲은 수령이 수백 년에 이르는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뽕뽕이 도열해있다. 전남 광양 옥룡사지의 동백숲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숲으로 손꼽힌다. 겨울에도 새하얀 눈 속에서 핏빛처럼 붉은 꽃을 띄우는 동백은 3월 즈음에 만개한다. 동백은 싱싱한 진초록 이파리와 대비되는 선홍빛 꽃망울도 아름답지만, 지는 모습이 인상적인 꽃이다. 꽃잎을 흘리지 않고 꽃송이 그대로 목을 꺾어 툇 떨어지기에, 형태를 유지한 채 낙화한 꽃송이들은 그 자체로 품격있는 그림이 된다.



다산초당 가는 길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에 이르는 길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아름다운 숲길이다.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주지였던 혜장스님이 서로 왕래하며 학문을 나눴던 길로 잘 알려져 있다. 길 끝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기거했던 다산초당을 만날 수 있다.



월출산의 정기를 잇는 강진전력지사



강진의 또 다른 길 끝에서 만나는 강진전력지사. 1985년에 발족되어 지금까지 전남 서남부의 전력망을 책임지는 숨은 공신들이다. 총 인원 89명의 직원들이 나주시와 강진 영암 해남 완도 장흥 진도 보성 등 7개 군을 관할한다. 강진전력지사의 특별한 점은 700MW의 HVDC 설비를 보유한 점을 꼽을 수 있다. HVDC 설비는 직류송전 설비이며 육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주도에 공급하는 설비로서 제주 부하의 약 25%를 충당한다. HVDC 제1선로가 98년 상업운전을 최초로 시작했고, 2014년에 제2선로가 상업운전됐다. 또 화원에서 안좌에 이르는 국내에서 유일한 154kV AC해저케이블을 운영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HVDC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운영하는 국가가 몇 안 되는 첨단설비이고 HVDC변환설비들은 대부분 외국산이다 보니 현장에서 유지, 보수할 때에도 해외제조사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강진전력지사는 본사와 합동으로 기술자립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기술교류회를 갖는 등 기술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온 #1HVDC 노후 변환설비의 성공적 교체를 완료하기도 했다.

또 하나 강진전력지사의 특별한 점은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태양광발전단지가 2개나 관내에 자리한다는 것. 이처럼 공급이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통에 연계하는 것도 이들의 큰 과제이다. 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에는 개폐소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최첨단 설비들을 다수 보유한 강진전력지사의 업무 환경은 그만큼 녹록지 않다. 게다가 신입사원의 비율이 높아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에 잘 정착하도록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테면 세대공감 전시회를 열어, 삐삐, 워크맨, 버스 승차권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물품을 전시하고 세대 간 공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 브라운 백 미팅을 열고 다양한 주제로 세대 간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또 전통적 동호회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신입사원들의 취향과 요구를 수렴해 라이딩, 재테크 동호회 등을 운영한다.

강진전력지사 사우들에게서는 적당한 긴장과 열정이 묻어났다. 특별한 업무를 대하는 긴장감과 신입다운 열정이 아닐까. 게다가 강진 전력지사 앞은 월출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신비하고 영험한 월출산의 봉우리들이 그들의 일상을 곁어보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천안지사 '능수버들'
동호회원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

세상에 하나뿐인 접시에

힐링을 담다

ceramic hand painting



싱그러운 화초, 평화로운 바닷속, 귀여운 곰돌이 등 다양한 이야기가 도자기에 담겨 세상에 하나뿐인 접시와 컵이 되었다. 부서도 연령도 다르지만 공통의 취미로 친화력을 다지며 업무 시너지도 높이고 있는 천안지사 능수버들 동호회원들이 손맛 나는 핸드메이드 도자기 작품을 만들었다.

문화동호회 능수버들 출동

봄의 문턱에서 늦깎이 추위를 털어내며 천안의 히읏도에공방으로 들어선 천안지사 내 문화동호회 '능수버들' 회원들. 회장인 배전운영부 김재옥 대리, 총무인 고객지원부 선진주 대리, 안정은 대리, 전력공급부 최지선 대리가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원하는 형태의 초벌 도자기 접시와 컵을 골라서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후 물감으로 채색합니다. 초벌 도자기는 분필 정도의 강도라서 살살 그려야 하고, 연필로 면을 칠하면 물감 채색이 안 되니까 연하게 테두리만 그리셔야 해요."

이현정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다들 마음에 드는 접시와 컵을 고르기 바쁘다.

"와~ 너무 귀여워!" 귀여운 모양에 반해버린 최지선 대리와 안정은 대리는 곰돌이 접시를 바로 선택했고, 김재옥 대리는 동그란 접시, 선진주 대리는 사각 접시, 그리고 공통으로 배불뚝이 머그컵을 선택했다. 뒤이어 또 다른 선택은 도안 정하기. 각자 휴대전화로 도안을 검색하는가 싶더니 곧 찾은 도안과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능수버들은 문화동호회인데 처음에는 책 읽고 영화도 보다가 두 달에 한 번씩 원데이 클래스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활동을 못해서 회원들 독려를 위해 오늘 참여했어요. 지난번에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페인팅을 하게 되어 더 기대됩니다."

회장인 김재옥 대리의 동호회 소개에 회원들은 즐거운 추억들이 절로 쏟아져 나온다.

"저 지난번에 만든 나뭇잎 모양 접시에 고기 구워서 먹었어요."

최지선 대리는 직접 만든 도자기 접시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른 이들도 잘 쓰고 있다며 공감과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쉬지 않고 그림에 속도를 내는 사우들. 속속 삭삭, 연필 움직이는 소리와 열중하는 모습 속에 점점 밑그림이 완성되어 간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 수칙을 지키며 활동을 진행했고, 사진 촬영 시에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도자기

“너무 귀여워.”

“오~ 툐이 세련됐어요.”

드디어 작품들이 하나씩 완성되자 탄성이 터져 나온다. 정성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을 앞에 두고 다들 각자의 특색에 맞게 잘 나온 거 같다고 서로에게 칭찬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돌고래가 유영하는 잔잔한 바닷속 그림을 완성한 선진주 대리는 “보직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배우는 중이라 계속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앞으로 작품을 보면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전에는 조금이라도 선이 빛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살짝 어긋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아서 유연해진 것 같아요. 업무에서도 작은 실수가 큰일이 될까 봐 고민을 많이 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동료들을 믿으니까 융통성과 여유도 생긴 것 같고요. 곰돌이와 기린을 그렸는데, 전부 남자 캐릭터예요. 제가 결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조용조용한 어조로 이어가는 안정은 대리의 농담은 동료들의 웃음을 더 크게 자아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체험을 별로 못했는데 오늘 도자기 페인팅을 모처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내년에 대학 졸업하면 더 열심히 활동할 생각입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더 많이 진행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야간대학을 다니는 최지선 대리는 시험 기간에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동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힐링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

“우리 동호회는 부서도 직급도 성별도 세대도 다양하거든요. 부서가 다르고 층이 다르면 얼굴 보기도 어렵고 대화도 못하는데, 업무를 벗어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시간을 함께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힐링도 되고 업무 시너지도 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동료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린’ 테마로 화초를 그렸다는 김재옥 대리는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한다며 축언도 보냈다. 그동안 활동의 경험이 쌓여서 오늘 훨씬 향상된 실력을 볼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끝나서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자 동료들 역시 동감의 목소리를 더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도자기를 완성한 뿌듯함을 가슴에 꼭 안고 공방을 총총히 나서는 사우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반짝이는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채색되어 있었다.



그림을 그리며 집중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객지원부
선진주 대리



선이 살짝 어긋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아서 유연해진 것 같아요~

고객지원부
안정은 대리

부드러운 수채화부터 동심 가득한 아트 페인팅

“도자기는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30% 정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줄어들 걸 예상해서 선도 조금 굵게 칠해야 해요. 색상도 다운된 툐의 물감 색깔과 달리 짙하게 채도가 높은 컬러가 올라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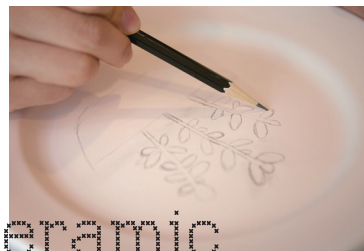
도자기가 줄어든다는 강사의 설명에 초벌기와 완성된 도자기의 크기 차이를 가늠해보며 자신의 그림을 살펴보는 사우들. 접시 테두리에 라인을 좀 더 굵게 그려야겠다며 조정에 나선 김재옥 대리는 유일하게 물레 위에 얹고 돌려가며 그리기에 도전한다. 물레를 이용하면 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렵다고 푸념을 하면서도 끝까지 정성스럽게 물레를 돌린다.

이어진 채색 과정 역시 한 땀 한 땀 수놓듯 조심스러운 손길 속에서도 붓질에는 힘이 들어가고 하나둘씩 형태가 뚜렷해진다.

“붓을 이용하니 손의 힘을 균일하게 조절하는 게 힘드네요. 광물성 물감이라 색도 생각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쉽지 않지만 재미있고 힐링도 됩니다.”

직접 색을 섞어서 만들어 사용한 선진주 대리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간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조금 실수해도 핸드메이드의 자연스러움이 있더라며 여유로움을 보인다.

리본 포인트가 돋보인 최지선 대리의 곰돌이와 안정은 대리의 뽕뽕바지 입을 곰돌이는 마치 곰돌이가족 같은 세트 작품이 탄생하는 등 모두 채색과 막바지 작업에 정성이 더해진다.



ceramic
hand
painting

업무를 벗어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일, 즐거워요!

배전운영부
김재옥 대리



모처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거예요!
전력공급부
최지선 대리



대구
10위로 꼽히는
대구 막창

쫄깃, 고소함이 폭발하는 대구의 맛!

막창

대구의 맛!



쫄깃함과 고소함이 폭발하는 대구막창구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과 서대구지사 직원들의 상생의 한 컷.

음식 이름에 지역명이 붙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경우가 있다. 대구 막창도 그 한 사례다. 소·돼지·닭의 부산물조차 선뜻 버릴 수 없이 가난했던 시절, 대구에서는 부산물 중의 하나인 막창의 조리법이 발달했다. 대구를 대표하는 맛의 거리, 안지랑 곱창골목을 찾았다.

이젠 '전국구'가 된 음식

1970년 대구에서 내장 구이를 팔기 시작한 건 시립도축장이 생겨나면서부터다. 처음에 막창을 찌개로 끓여 손님들에게 내놓았는데 미끌미끌한 식감에 외면을 당해 연탄불에 구웠더니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연탄불에 구우면 막창 속의 지방에서 기름이 쫄 빠지고, 고소한 향과 맛은 폭발한다. 이처럼 본래 막창 구이는 대구권에서만 먹던 특수부위 술안주였는데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인 외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인 홍창을 연탄이나 숯불에 구워 특별히 제조된 된장 소스와 마늘, 쪽파를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이다. 저지방 고단백 음식으로서 칼슘 함량이 쇠고기보다 월등히 높아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좋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막창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기를 보충해주고 뼈에 좋다고 나와 있다. 특히 다른 고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막창 특유의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담백하고 쫄깃하면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유로 회식 장소로도 자주 언급된다.

그 시절 추억이 깃든 안지랑 곱창골목

대구의 안지랑 곱창골목은 막창과 곱창으로 유명한 거리로 대구 여행을 오면 꼭 들르는 필수 코스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곱창과 막창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안지곱창이다.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맛집이기도 하거나와 서대구지사 관할이라 막창 회식 댄 무조건 안지곱창이다. 매년 인사이동이 있지만 회식 리스트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점심식사도 가능해서 점심 회식으로도 안성맞춤. 이곳은 서대구지사 성기동 노조위원장이 돈 없고 배고프던 학창 시절 자주 찾았던 추억의 단골집이기도 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친절한 사장님과 맛은 그 시절 그대로라고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납부 유예제 실시

작년 대구지역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회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전기요금 감면사업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방문포장 운동과 홍보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안지랑 곱창골목을 비롯해 코로나 시대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

서대구지사 추천 막창 맛집

- 홍림곱창 053-655-5903
- 대박곱창막창 053-655-5645
- 안지랑마당 053-654-0007
- 구공탄막창 053-622-7071
- 걸리버막창 053-356-6824



서대구지사 성기동 전력노조위원장의 학창 시절 단골집인 안지랑 막창집은 회식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왼쪽부터 서대구지사 장혜진 대리, 성기동 위원장, 대구본부 전략경영부 조희 대리

“네가 웃으면 내가 더 좋아~” 두근두근 카드 뽑기 게임으로 한 뼉 더 가까이

인천본부직할 인천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이경희 대리 가족



한식, 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 자격증을 모두 갖춘 능력자 남편과 10년 만에 얻은 축복인 아들, 그리고 매력덩어리 반려견 똑강이까지. 늘 서로 주고 싶은 게 더 많은 이경희 대리 가족이 떠나는 아주 색다른 집콕 나들이.

특명! 레어 카드를 뽑아라

“이거... 실화예요?”

집에 도착한 선물을 살펴보면 이경희 대리의 아들 이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크리스마스도, 생일도 아닌데 포켓몬 카드 한 장도 아니고 6박스나 선물 받다니 너무 행복해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사람을 만나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던 이경희 대리 가족은 코로나19 이후로 바깥 활동 대신 요리가 취미인 다정한 남편 이성 씨를 중심으로 집콕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달고나, 탕후루 등 재미있는 간식거리 만들기나 유튜브에 폭 빠져 있는 이레를 위해 인터넷 방송을 보며 대화하고 직접 영상도 찍으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card game



“아이에게 맞춰 취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른의 상상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뭘 하고 놀지, 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보를 통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취미 생활을 배울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에 신청했어요!”

이경희 대리 가족이 체험할 취미는 바로 ‘포켓몬 카드 게임’. 항상 포켓몬 카드를 하나씩만 사왔던 게 마음에 걸려 이번에는 6개의 대용량 포켓몬 카드 팩을 주문했다. ‘강화 확장팩 VMAX라이징’, ‘폭염 위커’, ‘전설의 고동’, ‘확장팩 4탄 양천의 볼트태클’, ‘스타터 세트 VMAX 이상해꽃+거북왕’이라고 적힌 카드팩 이름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엄마아빠와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에 과연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기우’였다.

먼저 남편 이성 씨는 이레가 포켓몬 카드 팩을 하나하나 언방식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경희 대리는 아들과 본격적인 카드 게임에 들어갔다. 가지런히 놓인 카드 팩을 하나씩 개봉해 가며 일명 ‘레어 카드’가 나오면 “오예!” “예쓰!” 등 다양한 감탄사를 연발하는 세 사람. “GX? V카드? 대체 이게 뭐데~” 라며 무심경하던 이경희 대리는 아이가 “와, 이거 진짜 대박! 레어 카드예요!”라고 소리치자 내심 뿌듯한 표정으로 카드를 들여다봤다. 그리곤 뵈은 한마디, “이거 복권에 당첨된 기분인데?” 남편 이성 씨 또한 자신에게도 좋은 카드가 나오자 “역시 난 금손이다!”라고 환호해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함께 하는 오늘이 가장 큰 선물

“솔직히 아이가 좋아해서 포켓몬 카드를 많이 사주는 했지만, 도대체 저 카드를 까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정말 재밌는데요? (웃음)”

엄마의 말에 신이 나는지 이레는 얼른 마저 카드를 뽑으라며 재촉해 세 사람의 치열한 게임은 빠르게 마무리됐다.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이레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보며 “안녕하세요, 이레입니다!” 하고 능숙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유튜브 흉내를 내며 들뜬 모습이었다.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재밌지만, 엄마 아빠랑 하니 더 재밌어요! 역시 제가 금손이었어요~”

20대에 입사해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기까지. 이경희 대리에게 한전에서의 24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보다 특별하다. 본사 안전관리실에서 노무처, 업무지원처, 해외사업처를 거쳐 현재 인천본부 전력관리처로 발령받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적응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달려온 그는 이제 연고지 없던 인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다. 업무에서는 베테랑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놀지 못하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여전히 숙제였다. 이경희 대리는 남편과 아들도 모두 지칠 즈음에 큰 선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며 미소 지었다.

“항상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어 욕심을 부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살을 맞대고 지내며 가족들에게 그저 행복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처럼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남편과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면서 ‘그냥 내 편’이라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사는 동안 때로는 각자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두 글자 안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뚝뚝 뚫린 이경희 대리 가족.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배운 오늘의 이 시간이 마음속 깊이 남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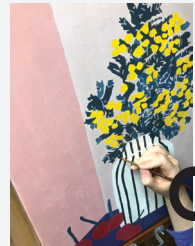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비대면 체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쁜 행복 그리기, 어때요 참 쉽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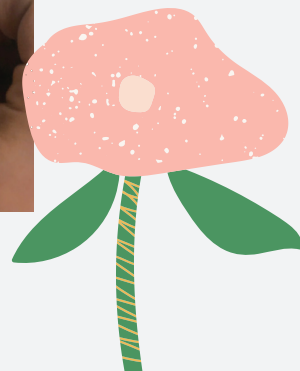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고재성 차장 가족



집콕으로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고 팍팍해진 감성까지 충전하기에 미술은 딱 좋은 아이템이다. 때문에 고재성 차장 가족들은 전통 민화와 현대 유화 그리기에 도전했다. 이들은 슬기로운 미술 생활로 단조롭던 일상을 화사한 컬러로 채색하며 아름다운 행복화를 그려냈다.



drawing



온 가족이 함께 DIY 명화 그리기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았지만 집콕 연휴를 보내기로 한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고재성 차장 가족. 황금연휴를 보내 의미 있게 보내면서 더불어 새 학기에 신입생이 될 두 딸의 새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수험생인 큰아들 준현이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해졌다.

“이번에 우리 주희는 중학생, 준희는 고등학생이 되잖아. 기념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준 아내 황혜진 씨, 착하고 든든한 아들 준현이(19세)와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잘하는 큰딸 준희(17세), 아빠 엄마 바라기 막내 주희(14세)를 비롯해 ‘고등어냥’ 풍이까지 온가족의 눈길이 펼쳐놓은 그림 키트에 집중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집콕 생활은 답답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모습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도 분담하고, 평소에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학교, 학원 생활 때문에 대화도 잘 못했는데 등교일이 줄다 보니 전보다 대화 시간도 늘면서 고민과 관심사에 대한 공유도 많이 하게 되었죠.”

길어진 집콕 생활이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정도 더 돈독해졌다는 고재성 차장. 때문에 이번 그림 그리기를 통해 또 새로운 추억을 쌓게 되었다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 한 쪽의 행복화가 되다

집콕 생활 미술 키트는 판넬에 그려진 밑그림 위에 물감으로 색을 칠해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다. 고차장 가족은 민화 컬러링 3점과 현대적인 유화 컬러링 2점, 총 5점의 그림을 완성하느라 연휴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다.

“민화 속 소재들은 저마다 뜻이 담겨 있어. 해태는 정의, 뛰어난 판단력을 의미하고, 잉어는 효, 과거급제, 그리고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장수와 길상을 의미한다.”

아빠가 설명해 준 그림의 뜻까지 듣고 보니 색색의 색을 입고 변화해가는 그림이 생각보다 더 재미있으며 좋아하는 게임도 잠시 미루고 그림에 열중하는 준현이.

“동양 채색화인 민화도 재미있지만, 나한테는 유화가 더 잘 맞는 거 같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준희는 유화 그리기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으며 뿌듯해한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림 그리니까 학교 미술 시간을 집으로 옮긴 것 같아. 근데 이거 언제 다 그려? 이제 좀 놀고 싶은데...”

“자자-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가족의 힘으로 멋진 작품 만들자, 파이팅!”

이왕 시작한 작품이니 잘하자고 엄마가 파이팅을 외치며 독려하자, 정적인 작업이 슬슬 재미없어진다고 투덜거리던 찬방지축 막내도 다시 집중 모드로 돌입.

“다 마치면 아빠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강력한 아빠 찬스에 더 힘을 얻어 그림을 완성한 후 뿌듯해 하는 가족들. 자신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은 유명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도 더 행복을 북돋우는 가족의 명화가 될 터이다.

“학업으로 스트레스받는 아이들에게엔 리프레시, 집안엔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그림으로 인테리어 장식까지 얻은 것이 많아 올 한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집콕 생활도 더 돈독해지는 계기로 삼았듯, 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노력하는 고재성 차장 가족은 이번 그림 그리기를 통해 또 다른 희망의 작은 꿈을 힘차게 쏘아 올렸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비대면 체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기술 기자재 실증으로 국내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왕곡 T-플랫폼 실증시험장

SF₆ Free 170kV GIS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자정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도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전력기자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GIS)도 그중 하나다.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는 아직 시장형성 초기 단계다. 우리나라가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향후 국내 기업들이 세계 가스절연개폐장치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회사는 이같은 국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실제 전력계통과 동일한 환경에서 신기술 전력기자재의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Test-bed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내 왕곡변전소에 구축했다. 이를하여 '개방형 T-플랫폼'이다.



1. 왕곡T플랫폼 실증시험장 구축을 추진했던 본사 송변전건설처의 정용수 차장(왼쪽 두번째), 광주전남건설지사 박진아 대리(오른쪽 두번째)와 현재 운영을 담당하는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 박현민 대리, 박영복 차장, 이형석 대리, 나지수 대리(왼쪽부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2~4. 실증시험장의 설비들을 점검하는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 시우들.



신기술 신기자재 Track Record 확보공간, '개방형 T-플랫폼' 구축

실제 계통 기반의 검증 인프라(Test Bed)를 제공하는 왕곡실증시험장은 전력설비 제작회사의 R&D 활성화와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OPEN 플랫폼으로 지어졌다. 옥내 2층 규모로 구축된 실증시험장은 154kV 전력용 변압기 및 보호계전기 등에 대한 실증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170kV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에 대한 실증을 수행한다. 최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전력기자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를 실제 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전, 우리 회사가 검증하여 신기자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왕곡면에 실증시험장을 마련했다. 제작사 측에게는 신기술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실부하 실증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 회사뿐 아니라 산학연이 Win-Win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170kV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실증사업은 T-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신기술 실증사업으로서, 우리 회사는 2020년 LS일렉트릭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왕곡실증시험장에서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가스절연개폐장치는 지구온난화지수가 CO₂의 23,890배에 달하는 *육불화황(SF₆) 가스를 절연 매질로 사용하였지만,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불소계 혼합가스 또는 Dry-Air를 사용하여 지구온난화지수 500배 이하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어 기존대비 약 98%의 CO₂ 저감이 가능하다.

*육불화황(SF₆):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표적 온실가스 중 하나. 대기 중 양은 이산화탄소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지만 지구온난화지수(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로 봤을 때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평균 23,890배가량 높다.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최대 3200년까지 남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며 시간이 지날수록 온난화 기여도가 높아진다(시상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소 발체). 육불화황은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으로 전력기자재의 절연체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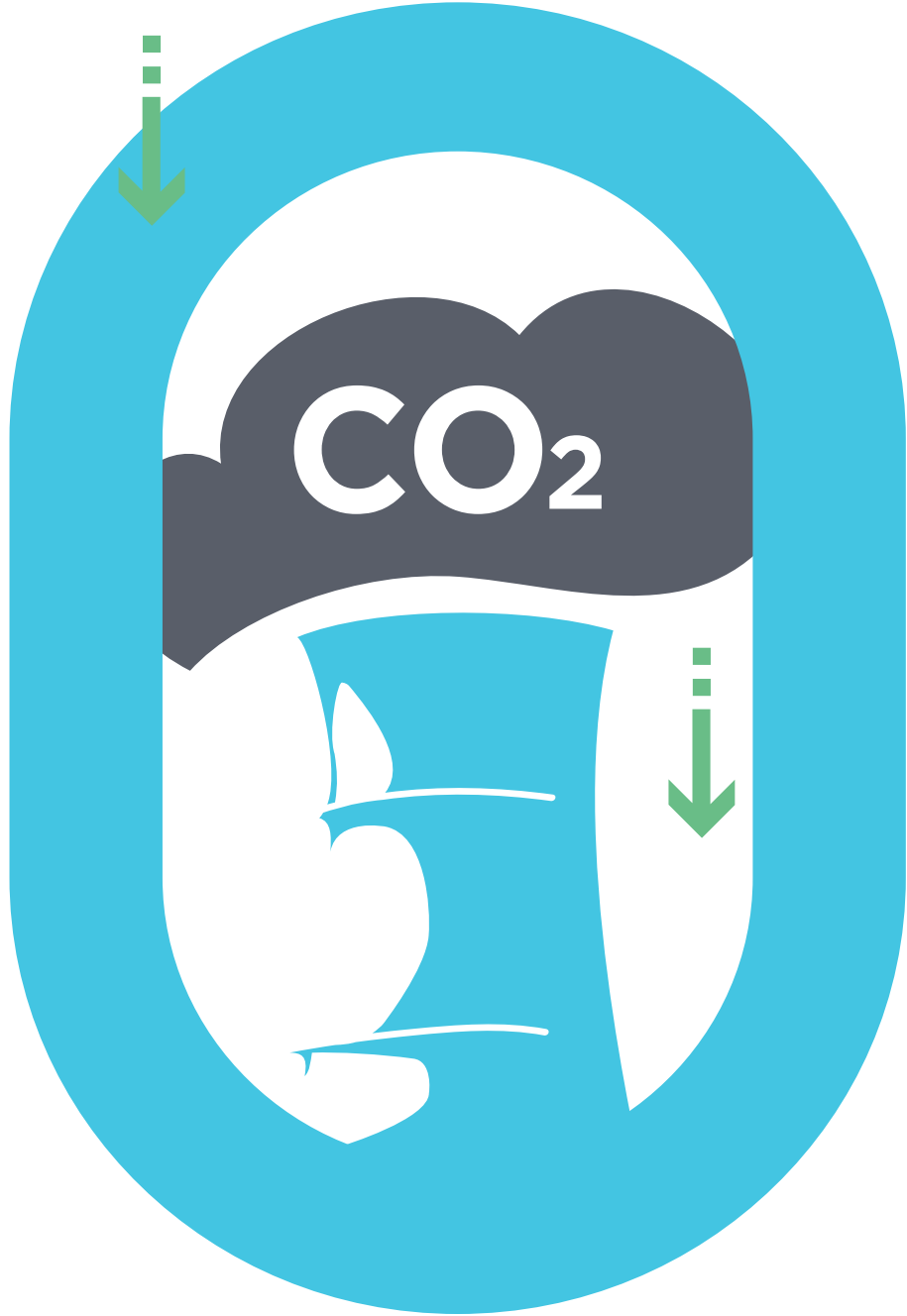
2016년에 개발에 착수한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는 현재 7개사의 개발업체가 개발에 뛰어들어 올해 안에 실계통에 도입될 예정이라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T-플랫폼은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실증에 우선 활용되고 있다.

전력신기술의 인큐베이터로서 전력산업 新 생태계 선도할 터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T-플랫폼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앞으로 실증설비 기업과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T-플랫폼의 활용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우선권을 주어 에너지밸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 공모 또는 수시 접수를 통해 국내 중진기기 제작사 전체로 실증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우리 회사는 T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과 조기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기반의 전력기기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화두,

탄소중립



글 _ 김종민 에너지전환처 에너지전환실 차장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피해의 심화는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 (Climate Crisis)의 극복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¹⁾)을 발표, 2050년 국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0)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글로벌 핵심의제로 부상한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량을 상쇄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Zero)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함께 삼림 조성, 청정에너지 시설 투자 등 감축 활동을 병행하여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이다. 1992년 지구 온난화의 규제·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²⁾)이 채택된 이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1997년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체결을 거쳐,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8년 IPCC³⁾는 <지구 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여 2100년까지 기온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왔다. '16년 11월 파리협정 기준을 시작으로, '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수립, 2050 LEDS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⁴⁾) UN 제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의 2050 LEDS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에너지 공급 부문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연료전지 및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⁵⁾) 기술을 기존 LNG 발전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미래 신기술 개발·상용화와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 부문의 친환경차 확대 및 전면 대중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등, 2050 LEDS 발표에 따라 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 121개국의 치열한 탄소중립 노력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은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이미 글로벌 의제화되었으며, 121개국이 이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 상황이다.

EU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19.12)을 발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성장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우선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탄소배출국 생산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의 법제화를 완료하여, 재생에너지, CCUS, 원자력, 넷제로 혁신투자 등을 통해 발전 부문 탈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은 G20 정상회의('20.11)에서 2050 탈탄소 사회 구현 공약을 발표하고, 해상풍력, 원자력, 수소, 전기차·배터리 등 14개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탄소중립 역행 기조에서 탈피, 대선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을 완료하였으며, 2035년 발전 분야 탄소중립과 2050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인프라와 에너지 확대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인 중국 역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는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전력 회사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오른쪽 표와 같다.

탄소중립경영, 어렵지만 가야할 길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비전력 에너지의 전기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곧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한다. 화력발전의 퇴출 등으로 인한 좌초자산의 발생은 그룹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풍력·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과 불확실성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 CCUS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상용화,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발전 기술의 다각화 등도 시급한 사항이다. 또한 합리적 시장설계를 통한 전력구입비 영향 최소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금제도의 확립,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소비 효율향상 등 수많은 이슈와 현안들이 우리 회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따른 영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능동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처실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 및 적기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제도 개편 대응,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확보, 전기요금 체계 개선, 탄소중립 기술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등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정부·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회사 의견 반영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지향점이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임이 명확하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에 전사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주요 전력회사의 탄소중립 계획

- RWE**
 - 목표 연도 : 2040년
 -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또는 전환 예정
 - 풍력, 태양광 및 ESS 설비투자에 연간 15억 유로(약 2조 원) 지출 계획
- enel**
 - 목표 연도 : 2050년
 -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화 (Full De-carbonization) 추진
 - 2017년 대비 2030년 발전량당 탄소배출량 70% 감소
- endesa**
 - 목표 연도 : 2050년
 - 2005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 80% 감축, 2050년 탈-탄소화 추진
 - 석탄화력 2기 조기폐쇄(~'30년), 원전 수명 연장(~'40년), 신재생 확대 - (태양광) 2030년 3GW - (풍력) 2022년 1.85GW
- DUKE ENERGY**
 - 목표 연도 : 2040년
 -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 기존 원전 보수 및 지속 운영
 - 석탄화력 부지 태양광 시설로 전환
 - 전기차 고속 충전기 네트워크 구축 및 여객선의 전기화 추진 등 전기화를 통한 탄소감축 추진
- Xcel Energy**
 - 목표 연도 : 2050년
 - 2025년 재생에너지 설비 16GW, 2030년 27GW 보급 계획 (현재 8GW)
 - 2029년 10GW 이상의 석탄발전소 폐쇄, 2035년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
- ONTARIO POWER GENERATION**
 - 목표 연도 : 2050년
 - 탄소 배출량 : 2020년 27Mt, 2030년 20Mt, 2050년 배출량 Zero
 - 2017년 대비 2030년 발전량당 탄소배출량 70% 감소

1)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88.11)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4)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5)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녹색 프리미엄 시행

글 _ 이연승 요금기획처 요금전략부 차장

RE100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착한 소비, 탄소중립경영이 확산되는 추세다. 전력 분야에서의 화두는 RE100. 지구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해 전력의 착한소비를 이루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녹색 프리미엄을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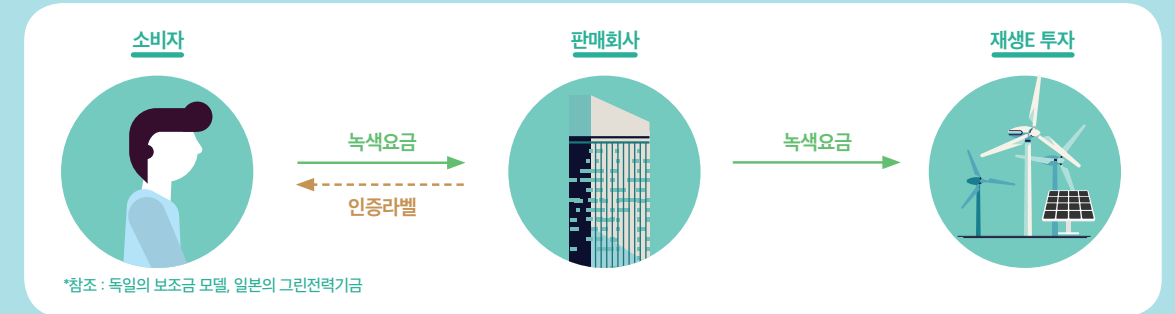
Renewable
Energy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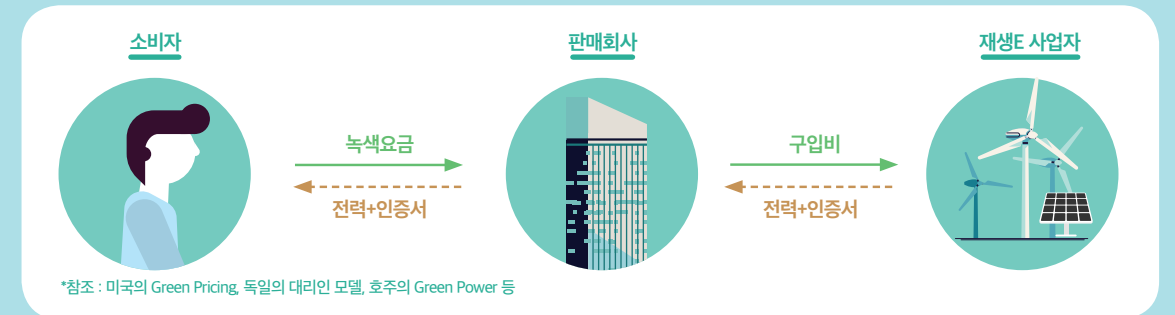
2006년 한 켤레의 신발을 판매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다는 철학을 가진 신발 브랜드가 등장했다. '착한 패션' 유행의 시작이었다. 제3세계 농가에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거나 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립을 돕는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거나, 어린 노동자 착취 또는 잔인한 동물 실험을 한 제품에 대한 불매를 비롯하여 개인의 소비 행위가 이웃, 사회, 나아가 환경에까지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착한소비'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다. 최근에 가세한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소비' 확산이다. 스타벅스는 2018년 7월부터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시작했고, 202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 식기류 제공을 폐지하는 등 탄소중립 경영방침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순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전력 분야에서 단연 화두는 RE100이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선언이다. 2014년 국제 비영리단체 The Climate Group이 개최한 2014 뉴욕 기후주간에서 처음 발족되었으며, 이케아를 시작으로 애플, 구글 등 전 세계 280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2020년 12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최초로 SK그룹이 RE100을 선언했다. RE100 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녹색요금제이다.

녹색요금제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인증받기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선택형 요금제이다.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각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국가별 도입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요금제가 운영 중인데, 기부금 방식과 요금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금식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 확산 기여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전력 판매회사와 녹색요금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납부한 녹색요금 재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하는 운영방식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이 미흡한 녹색요금제 도입 초기에 주로 운영된다.



요금제식 녹색요금제는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100%)을 정하고, 해당 전력사용량에 대해 녹색요금(원/kWh)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등 일정 수준의 여건 조성 후 도입되는 운영방식이며,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인증을 판매회사로부터 받아서 납품처에 증빙하거나 홍보 용도로 사용한다.

해외 녹색요금제 운영 사례



훗카이도 그린전력요금

소비자는 매월 전기요금의 5%를 전력 판매회사인 훗카이도 전력에 추가로 납부하고, 자원은 비영리단체인 그린펀드에 전달되어 시민 풍차 건설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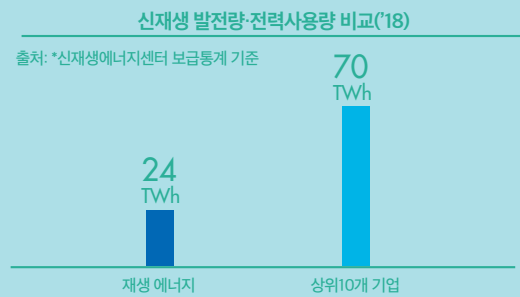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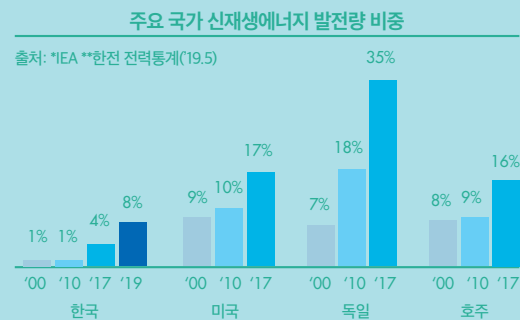
호주 Energy Australia Green Power 요금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비중(10%, 20%, 100%)을 선택하고, 해당 사용량에 대해 녹색요금을 납부

RE100의 새로운 무역장벽 효과

RE100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이다.

애플은 43개국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사무실 등 소비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여 2018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들의 RE100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공급업체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Supplier Clean Energy Program)이다. 애플은 자사 제품의 모든 부품 공급사들에게 RE100을 이행하도록 서약을 받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공급망에서 RE10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애플과 유사하게 BMW도 자사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들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 납품 물량에 대해 RE100 미충족 시 대만 TSMC로 교체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으며, 같은 요구를 받은 삼성SDI는 국내 공장 생산물량을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공장으로 옮기면서 충족할 수 있었다. (한국일보, '21.02.25) RE100 확산과 발주처·NGO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한 이행방안 제공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한국형 녹색요금제, 녹색 프리미엄

녹색 프리미엄제를 도입하기까지 우리 회사에서 약 3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었다. 해외 운영사례를 참고하였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등 도입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녹색요금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고, 기업 및 산업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6차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점검하였고 '20년 12월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마침내 도입되었다.

녹색 프리미엄이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녹색요금제의 일종이다. 희망하는 소비자는 한전과 약정을 체결하여 녹색 프리미엄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녹색 프리미엄 자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체되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투자에 사용된다.

녹색 프리미엄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소비자는 희망 물량과 가격을 제시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한도 내에서 최고가 순으로 낙찰받는다. 물량, 하한가, 낙찰방식 등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 한전,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녹색 프리미엄제 운영방식



※ 신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 정부, 한전, 에공단,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 판매물량, 입찰하한가 등 의결

※ 기관별 업무

- (한전)입찰, 청구, 수납, 사용확인서 발행 - (에공단)재생e 물량산정, 자원 활용

우리 회사는 제1차 녹색 프리미엄 입찰을 2021년 1월 초 공고하여 2021년 2월 5일까지 기업들의 희망 물량과 가격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전체 판매물량인 17.8TWh의 약 7%에 해당하는 1,252GWh가 평균가격 kWh당 14.6원에 낙찰되었다. 이로써 2021년에 총 133억 원의 녹색 프리미엄 자원이 조성되어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 투자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우리 회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에 참여하거나 발주처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주택용 등 다른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녹색 프리미엄, 기후 위기의 대안

녹색 프리미엄 도입으로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력 분야에서도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소비가 가능해졌다. 국내 기업의 경우 발주처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건 충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아울러 녹색 프리미엄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분야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6~8월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으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4개국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8개국에서 '전염병'보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대한 국가 위협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0월 KBS와 그린피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후 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6.9%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71.8%가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 해결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하루빨리 녹색 프리미엄제가 정착하여 주택용 등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4.1조 원 흑자

우리 회사는 2월 19일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 58.6조 원, 영업이익 4.1조 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유가 등 연료가격 지속 하락으로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6.0조 원 크게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장마 기간 장기화 영향으로 전기판매수익은 0.2조 원, 해외건설부문 공정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기타수익 0.4조 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조 원 증가한 4.1조 원을 기록했다.

< '20년 연결 손익 (단위: 억 원) >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9년	'20년	증감	'19년	'20년	증감	'19년	'20년	증감
591,729	585,693	△6,036	604,494	544,830	△59,664	△12,765	40,863	53,628

영업이익 주요 변동 요인을 짚어보면 '19년 하반기 이후 국제 연료가격 하락과 수요감소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는 6.0조 원 감소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유가 및 유연탄가 등 연료 가격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3.5조 원 감소했다. 전력구입비는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입량이 2.0% 증가했으나, LNG, 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마 기간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2.2% 하락하여 전기판매수익은 0.2조 원 감소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와 전력그룹사는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연료비, 전력구입비와 별도로 영업비용의 약 37% 규모의 전력 공급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약 4,7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시현했다.

최근 5년간('15~'20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은 5.9%로 동 비율 적용 시 2020년 약 1조 1,500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2020년 전력공급 비용 증가율을 3.5% 이내로 유지하여 전년 대비 약 6,800억 원 증가 이내로 억제했다. 또 전력공급비용 절감과 함께 저금리 신규차입원 발굴, 차입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자비용을 전년 대비 514억 원 절감했다.

올해도 우리 회사와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경영효율화를 통해 전력공급 비용을 절감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익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회사와 전력그룹사의 판매량 1kWh당 전력공급비용(단위당 비용) 증가율을 2024년까지 연간 3% 이내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한전 자체 전력공급비용 TF를 구성하여, 재무 이슈 중점 점검 및 대응 등 전력공급비용 집행 효율성 제고와 수익 개선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이를 발전회사로도 확대하여 발전부문 전력공급비용 관리를 위한 전력그룹사 협의체를 구성, 효율화 목표를 공유하여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로 한전 및 전력그룹사 전체의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공동 모니터링하는 등 집행실적 점검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신재생 확대,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해 망두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저탄소·친환경 중심 해외사업 개발,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등 ESG 경영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설비관리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약 20조 규모 (20년 잠정 기준)임.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절약·탄소중립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2월 19일 경인건설본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성 영업본부장과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와 에너지시민연대는 ①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유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②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의 가치 및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 협약내용으로는 ▲전기의 가치,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소비자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소비자 참여형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동 추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 공동 추진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있다.

최영성 한전 영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한전은 전기의 가치, 저탄소 사회 전환 등에 대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시민연대와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협력하고, 신규 협력분야도 지속 발굴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설 명절맞이 사랑 나눔 봉사와 후원

우리 회사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낡은 건물 보수를 돕고 생필품을 지원했다.

김종갑 사장과 신정훈 의원, 정창식 전국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영유아 양육시설인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화영아원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시설로, 우리 회사는 고드름이 녹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비상 통행로와 인접 건물 지붕 처마 물받이 공사에 1,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경과를 둘러보고, 영아원에 200만 원 상당의 코로나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영아원을 방문한 김종갑 사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하며 올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313개의 사회봉사단이 283개의 취약계층 시설에 4억 3천만 원 상당의 지역농산물과 생필품,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는 2월 25일 전력연구원에서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제품 조기상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추가 업무협약식을 시행했다.

이번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업무협약식에서는 에너지 공공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3개 공공기관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7개 기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신규 협력 공공기관은 전력거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중소기업의 자체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적 검증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며 이후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외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혁신제품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한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포상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활성화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현규 상생발전본부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의 열정과 기술력에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더해진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또한 납품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주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R&D 단계부터 홍보, 공공기관의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공기관과 우수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혁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교류와 협력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설 명절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현장 특별점검 추진



우리 회사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기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설 연휴와 안전점검의 날을 앞두고 시행한 이번 특별점검은 적극적인 정전 예방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했으며, 경영지원총괄부사장 등 경영진 8명과 18개 전 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먼저 전통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급선로와 주요 전력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 발생하는 사고를 신속 복구하기 위해 비상 복구 자재 및 인력 운영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설 연휴기간 본사 상황근무를 강화하고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정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비상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우리 회사는 이 밖에도 폭설·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설비점검과 보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비대면 상생 팔도장터 개최



우리 회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상생하고 농수산물 특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비대면 '상생 팔도장터'를 개최하였다.

상생 팔도장터는 전국의 대표 농수산물 특산물을 임직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이다. 상품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현장 판매 대신 '사전 예약 후 사후 배송'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 명절 전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장터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가능 품목을 신설하여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전통시장·사회적경제기업·지자체 추천 농특산물 등 참여업체를 확대하였으며, 구매 참여 대상을 한전뿐 아니라 한전FMS, 한전MCS, 한전CSC 등 자회사 직원까지 확대했다. 본 장터를 통해 우리 회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약 1.4억 원의 특산물을 구매하며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농수산물 특산물 구매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 시행 횟수를 확대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1) 에너지시민연대 : 전국 23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운동, 민간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활동분야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운동 전개,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등이 있음.

꿀잠 재워드립니다

Sleep Tech
수면 위로 떠오른 수면 산업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산업의 규모는 2012년에서 2019년 사이 7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수면시간이 짧은 나라답게 양질의 숙면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과 접목된 '슬립테크', 어디까지 왔을까?

'잠 부족 국가'의 블루 오션
슬립테크(Sleep Tech)

'잠이 보약이다.'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팩트'다. 수면 상태에서는, 신진대사 중 손상됐던 세포들이 회복을 시작하고 뇌에 축적된 여러 부산물이 제거된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질병에 가깝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가능성을 높이고 우울증도 야기한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현대인은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더구나 한국은 대표적인 '잠 부족 국가'다.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하루 평균 수면시간(8시간 22분)보다 41분이나 적다. 수면장애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불면증 환자 수는 2015년 34만 6,000명에서 2019년 63만 3,000여 명까지 늘었다.

최근에는 기술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이른바 '슬립테크(Sleep Tech)'다. 수면(Sleep)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기술을 말한다. 수면 산업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슬립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는 2017년부터 슬립테크관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정도다. 국내외 수많은 기업은 오늘도 밤을 지새우며, 소비자의 '꿀잠'을 돕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숙면
가전 기술 맛보기

슬립테크 제품은 침대에서부터 이마에 장착하는 소형 장치까지, 다양각색이다. 침대 제조업체 '슬립넘버'가 선보인 '스마트 침대'는 내장된 수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파악하고 쾌적한 숙면을 유도한다. 자는 동안 수면에 최적화된 온도를 제공하고 수면 자세를 파악해 침대 높이부터 매트리스 쿠션감까지 조정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코를 곤다면 침대에 포함된 공기의 양을 조절해 머리 부분을 천천히 올려 코골이 증상을 완화하는 식이다.



웨어러블 수면 마스크로 '뉴로온'. 체온, 뇌파, 안구 운동, 맥박, 근육의 긴장도를 기록해 수면시간을 최적화한다.

스마트 침대도 종류가 많다. 코웨이가 판매 중인 스마트 침대는 120개 공기주머니가 사용자 체형과 체압을 감지해 형태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램프의 스마트 베개 '지크'는 미세한 진동으로 코골이는 멈추게 하고 베개에 내장된 무선 스피커로 음악, 북 팟캐스트, TV 등을 들으면서 잠들 수 있다. 온도 조절은 물론 앱과 연동해 수면 주기, 수면 지속 시간 등 수면 습관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 안대도 나왔다. 미국 인텔클리닉이 개발한 '뉴로온(NeroOn)'은 빛을 이용해 양질의 수면을 돕는다. 빛을 차단하는 일반적인 안대와 달리 뉴로온 스마트 안대는 사용자 얼굴에 LED를 쓰는 '빛 치료 기술'을 적용했다. 피부 접촉 전극을 통해 사용자 맥박과 뒤척임은 물론 뇌파와 체온 정보를 측정해 수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선보인 조명기기 '라이트 사이클'은 지역을 입력하면 위치와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종합해 자연광에 가까운 최적의 색온도와 밝기를 찾아준다. 지속적인 빛 조절을 통해 수면 주기를 제어하는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을 준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닉스'의 '고슬립'은 그야말로 '수면기'다. 강의실, 차량 내부 등 밀폐된 실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졸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역이용해 사용자를 재워주는 수면 가전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혼합기체를 분사하고 잠이 잘 오는 소리와 향을 뿜어 수면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 걱정도 없다. 모든 이산화탄소가 누출돼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1% 이상 오르지 않게 설정됐다. 체내 이산화탄소 농도(4%)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수면 습관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기술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베더'는 이마에 부착하는 작은 장치 하나로 사용자의 모든 수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장치를 붙이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면 수면 시간, 수면무호흡증 여부, 산소 레벨, 심장박동, 수면 자세, 자세에 따른 수면의 질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된다.

미국 스타트업 '내넷'은 아기 건강에 노심초사하는 부모를 위한 제품을 개발했다. 아기에게 내넷이 선보인 '아기보'를 입히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아기 수면 상태를 측정해서 보여준다. 단순히 자는 모습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수면의 질, 수면 시간, 심장박동수를 기록하고 실시간 온도와 습도 알람도 계속 업데이트한다.

수면 관리 플랫폼 '다이브'는 이마에 뭘 붙일 필요도, 아기보를 입을 필요도 없다. 다이브는 오로지 매트리스 내에 있는 센서로 수면 환경을 모두 모니터링한다. 수면에 드는 시간과 기상은 물론 호흡, 맥박도 자동으로 인지한다. 슬립테크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시장은 더 그렇다. 국내 수면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 원대. 지난 2012년(5,000억 원)에 비해서 급증하긴 했지만 중국(46조 3,000억 원), 미국(45조 원), 일본(9조 원)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반대로 얘기하면 향후 발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수면 전문가 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은 "국내 수면 산업과 슬립테크는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다. 새로 개발한 제품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침구-전통 의자-IT 스타트업은 물론 가전 대기업까지 수면 센터를 찾는다. '꿀잠'을 돕는 수면 가전은 앞으로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움츠러든 희망을

다시 바라볼 때

Edvard Munch



금 김소율(플로리다미술연구소 대표, <치유미술관> 저자)

희망

<태양> 1913 | 캔버스에 유채(액화) | 450x772cm

태양은 '떠오른다'

푸른 지평선 너머로 둥근 해가 막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따뜻한 햇살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밤을 아침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순간이다. 바위 구석구석까지 태양의 빛줄기 끝이 닿아있고, 광활하게 펼쳐지는 생명의 덩어리는 깨질 듯 부서지면서도 눈부시게 포근하다. 지금 우리 중 태양의 움직임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태양이 '떠오른다'고 표현한다. 눈부시게 밝은 빛을 머금은 해가 매일 다시 돌아와 우리를 비추는 그 시간에서 희망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하루를 마감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생활 패턴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와 경쟁을 해야 하는 밤 시간 대신 낮 시간에 음식을 찾아다녔고, 털이 아닌 땀샘을 발달시켜나갔다. 아침이 온다는 것은 다시 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고미은 희망의 신호였다. 태양은 승배의 대상이 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 밝음과 따뜻함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 우릴 찾아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만든 결과였다.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시간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몽크가 오슬로 대학교에 베힌로 완성한 작품 <태양>(1913)은 불안정한 감정을 오랜 시간 지니고 살아온 한 사람이 아픔을 딛고 발견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몽크는 대표작 <절규>(1893)에서 그려냈던 불안과 절망에 결코 잠식되지 않았다. 20년 후에 그려진 <태양>이 그 사실을 보여줬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며 앞으로의 시간은 과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살아오면서 각자의 시간 속에는 다양한 굴곡들이 있었을 것이다. 결음마부터 시작하여 공부와 일, 인간관계까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은 지나 갔고, 그 이후에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시간들이 우리 삶에 존재해왔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머물렀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관한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분명 다음을 살아왔고, 과거의 모습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때에, 그 어둠의 흔적을 지워냈던 과거 나의 태양은 무엇이었을까. 그 시간을 견뎌내고 치유할 수 있었던 자랑스러웠던 과거의 나에게 한 번쯤 되물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 다. 추위와 어둠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믿음이, 봄과 아침을 만나게 해주듯, 절망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희망에 대한 믿음이 될 것이다.

조선 시대의 '먹고사니즘'

職業

신비로운

직업사전



“뭐 하면서 먹고 사니?” 다소 원시적인 질문이다. “무슨 일을 하고 연봉은 얼마나 되니?”라는 사회적 역할과 물질을 결합시킨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면서도 물신화에 빠진 질문도 있다. 노동의 현장에서 항상 제기되는 두 질문은 “직업이 뭐니?”로 집약된다. 결국 각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정체성’은 ‘직(職)’과 ‘업(業)’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통시대를 이해할 때 당대의 직업은 매우 좋은 소재다. 조선 시대의 직업들을 통해 흥미로운 당시의 생활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수모 首母

주례부터 스타일리스트까지 커버하는 조선판 웨딩플래너

먼저, 일하는 여성들을 만나보자. 가난한 사대 부 여성들의 생존 수단이 되었던 샅바느질부터 자영업까지 다양했다. 그중에 흥미로운 여성의 직업이 바로 수모(首母)이다. 장파(粧婆) 혹은 머리어머리로 불렸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미용과 의상 관련 전문가다. 특히 조선 시대 혼례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웨딩플래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의 역할을 모두 겸했다.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맞절과 합환주를 마시게 하고, 간단한 덕담을 해주는 등 주례사의 역할까지 그 녀들의 몫이었다. 18세기 전후로 한양에서 약 40명 내외의 수모들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왕실 혼례와 사대부가 등의 부유층 혼례를 주관했다.



가체 加髻匠

명품 ‘가체’ 디자이너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했던 직업들도 있다. 조선 시대 여성을 흔들었던 가체장도 그중 하나다. 18세기 여성들의 대표적인 과시 소비의 대상 중 하나가 가체였는데, 풍성한 모발이 기본이고 한쪽으로 쏠려 기울어지거나 양쪽으로 목직하게 내려오는 모양이 유행했다. 가체를 만들 땀 주로 죄수나 승려의 머리카락을 활용하기도 하고, 상투를 틀 때 자르는 머리를 활용하기도 했다. 탈색을 마친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짧은 머리카락은 솜을 써서 길게 붙였다. 수선한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머리타래를 만들고 광택 작업이 끝나면 가체는 완성된다. 가체는 수모가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기도 하였고, 체괄전이라는 상설 판매장도 있었다. 서울에서 11칸 반짜리 초가집의 6배에 해당하는 700냥 정도의 고가품이 거래되거나, 머느리가 시부모에게 인사하다가 가체의 무게에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정조는 가체를 금하는 법령을 반포하기도 했다.



착호갑사 捉虎甲士

‘범 내려온다~’ 극한직업의 최고봉

사형 집행자인 회자수부터 소방수였던 금화군을 비롯, 과거에도 ‘기피 업종’에 종사했던 수많은 직업인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 묵숨까지 걸어야 했던 직업이 있으니, 바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인 착호갑사다. 이들은 ‘호환’을 막는 역할을 하였으며 1416년 정부의 공식적인 임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1424년에는 40명, 1425년에는 80명, 1428년에는 90명 등으로 늘어나다가 세조 때에는 2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에 이들의 수를 440명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주로 담력이 세고 무예가 출중한 이들이 선발되었다. 그들은 180보 밖에서 목공을 한 발 이상 명중시켜야 하고, 두 손에 각각 30kg 정도의 물체를 들고 100보 이상 한 번에 이동할 정도는 되어야 했다. 목공이나 쇠뇌로 저격한 후 창으로 급소를 찔러 사냥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전기수 傳奇叟

입담으로 수익 창출! 오늘날의 배우 겸 유튜버

프로 바둑기사 기객부터 길거리 원숭이 공연가 농후자, 해금 연주자까지 예술이 상품화되면서 다양한 예능인들이 활약했다. 그중 하나가 전기수였다. 이들은 소설 낭독 전문가였다. 18세기 이후부터 소설은 매우 비싼 사치품이자 마치 현대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문화 상품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소설이라는 문화 상품에 돈을 아낌없이 썼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 출판이 성행했고, 도서대여점 영업의 중심에도 소설이 있었다. 소설을 듣고 볼 수 있게 가공해 전달하는 전기수들은 주로 종로 일대 저자거리에서 활동하였으며 사대부를 비롯한 부유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방문 낭독 서비스도 제공했다. 낭독 솜씨와 표현력으로 청중들을 감동시켰던 이들은 공연 중에 서사의 전개가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입을 닫아 침묵한다. 이때 청중들은 앞 다투어 동전을 던지면서 계속 낭독해 줄 것을 주문하는데, 전기수는 돈이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되면 계속 낭독을 진행했다. 이를 요전법이라고 했다.



오작인 倣作人

‘사’씨는 안 붙어도 전문직 종사자! 조선의 과학수사대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주목된다. 입주 가정교사인 숙사에서부터 매사냥꾼 응사까지 다양하다. ‘사’씨는 없지만 주목할 만한 직업은 조선의 과학수사대 오작인이다. 이들은 시체를 다루는 검사관이었다. 검사는 최소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 서로 다른 검사관이 담당하여 객관성을 확보했다.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사인(死因)이 불분명할 경우 다른 지역의 오작인을 선정하여 재검하기도 했다. 흥기에 뿌려진 혈흔은 식초로 찾고, 상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솔지게미를 사용했다. 독사 여부는 은비녀를 향문이나 입에 넣어 판별하였고, 백지를 눈·코·입에 붙여 독기 여부를 판별하기도 했다. 단목탕으로 시신을 세척하고 삼주 뿌리를 태워 악취를 제거하기도 했다. ‘무원록(無冤錄)’은 이러한 검사의 방법 및 사례 등을 정리한 대표적인 법의학서다. 제목처럼 이들은 죽음의 원인을 밝혀 원망이 없게 했다.

거벽 巨擘

과거시험 대리업자

저자거리의 소매치기 표랑도부터 병역을 대신 하였던 대립군 등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던 생계형 범죄자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데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상을 보여주는 과거시험 대리업자인 ‘거벽’을 둘러싼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전통시대, 공직자를 공인된 시험으로 뽑았다는 것도 실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세계에서 중국, 한국, 베트남 정도가 그러했다. 신분제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 과거는 매우 불공정해지기 시작했다. 예상 답안지를 만들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책행담’이라고 하였고, 몸싸움을 통해 좋은 자리를 잡는 ‘선점권’, 예쁜 글씨로 답지를 써 주는 ‘서수’ 등과 같이 거벽은 부정행위의 대표적 존재였다. 심지어는 영남지역 과거시험에서 1~3 등의 답지를 한 사람의 거벽이 작성해 문제가 되었고, 이 일이 발각되자 자결하였던 유광역의 사례가 전해지기도 한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마켓' 놀이

최근 한국인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한 '쇼핑 앱' 1위로 '당근마켓'이 꼽히는 등 중고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고거래의 인기는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나 취미와 관련해 구입하거나 처분하고 싶은 물건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중고마켓 앱은 접속하고 있는 장소를 바탕으로 필요한 매물을 찾아주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어디서 팔아볼까? '3대 중고시장' 비교 분석

중고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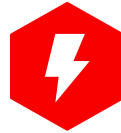
약 2,300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구 시장. 과거와 달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거래할 수 있다. '카페 등록' 버튼으로 앱과 카페에 동시에 매물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안전거래'로 '돈 떼일 일'은 현저하게 줄었다.

당근마켓



GPS로 사는 곳을 인증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할 수 있다. 직거래율이 높아 거래가 활발되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적다. '매너 온도' 기능으로 거래 당사자 간 '평가'도 가능하다.

번개장터



'리셀'과 '덕질'의 장.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스니커즈나 피규어 등 취미 물품 매물이 많다. '빨리 팔기' 기능으로 내 상품이 잘 보이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전문 업자'의 판매 상품이 유리할 때도 있다.

잘 사고 잘 파는 방법

'왜 안 팔리지?'

중고거래에도 '마케팅'이 필요해

용돈 벌이 겸 집안 정리를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해 올려놨는데, 이것저것 묻기만 하는 '고객 응대 (CS)' 채팅에 품만 들고 정작 팔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거래를 위해 제공한 정보를 돌아보자. 먼저, 시세에 적절한 가격인지 살핀다. 새 제품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를 함께 올려 구매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 또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건의 크기나 무게, 사용감 등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 체크한다. 사진을 찍을 때 크기 가늠이 쉽도록 줄자 등을 놓고 찍는 것도 방법이다.

자나 깨나 사기 조심!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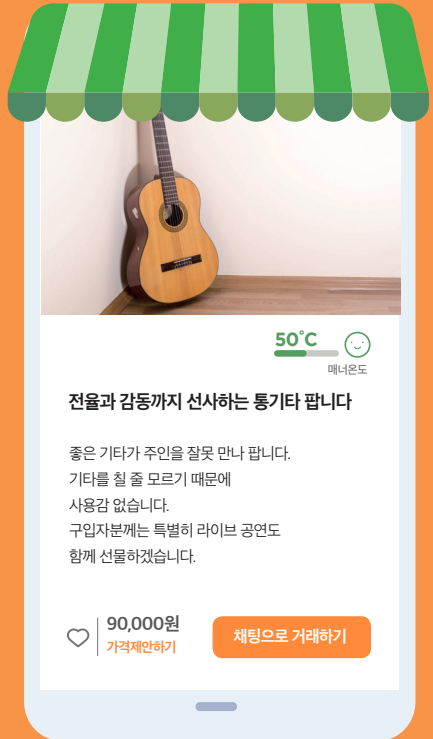
중고 거래 및 택배 거래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태의 물건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급 직거래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게 좋다. 또한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게시된 물건, 직거래 성사가 어려운 오지 지역이라며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게 좋다. 입금하기 전에, 사기 이력이 있는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정보를 검색해볼 수도 있다. 경찰청이 만들어 배포한 '사이버캡'이나 '더치트'를 활용하면 된다. 직거래를 할 땐 많은 사람들이 오가거나 CCTV가 있는 안전한 곳을 거래 장소로 잡는 것도 기본이다. 미성년자나 여성이라면 가급 혼자서 나가지 말자.

원하는 물건 저렴하게
'득템'하는 법

각각의 중고거래 앱에는 검색 기능은 물론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거래 글이 게시됐을 때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제품 키워드나 브랜드명을 미리 등록해두면, 열심히 검색할 필요가 없다. 또한 관심이 가는 물건의 판매자가 함께 올린 매물을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취미 생활과 관련된 물건, 가구나 전자 제품같이 무겁고 값나가는 물건은 이사 등의 계기에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에 들이는 품을 줄일 수 있다.

중고 거래에도
상도(商道)가 있다?!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없는 물품들도 있다. 주류, 담배, 휘발유, 암표, 도수 있는 렌즈나 안경, 화장품 샘플, 헌혈증, 종량제 봉투, 반려동물 등은 거래할 수 없다. 이를 참고해 지킬 건 지키자. 돈을 주고 팔기엔 애매한 물건의 경우 '무료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무료 나눔 물건을 받는 사람들은 마스크나 식빵 등 판매자가 누구라도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것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나눔을 받게 된다면 기분 좋은 작은 선물을 건네 보는 것도 좋겠다.



클거래/클매	네고	민트급	플박	택포/운포	급처	오늘도 평화로운~
가격을 흥정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고 '쿨하게' 거래에 응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예)클거래하시면 2만 원에 드려요.	Negotiation(협상)의 준말. 예)네고는 사절합니다. (꺾아줄 수 없습니다)	새 제품에 준하는 상태. 조폐국을 뜻하는 민트 (mint)에서 나온 말. 예)민트급	풀(풀) 박스 박스는 물론 구성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 예)아이폰11 풀박 팝니다.	택배비(운송비)포함. 예)택포 가격인가요?	급하게 처분. 예)이사 예정으로 가구 급처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는 유행어에서 온 말로, 중고거래 중 사기나 다툼, 신경전 등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아인슈타인 급' 기억력을 위한 특급 비책

Don't Forget!

나이 +1
건강증 +1?
No!



Q 40대 중년 남성입니다. 20대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사십대 중반의 문턱에 서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특히 요즘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면서 점점 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예전엔 수첩 없이도 업무 내용을 달달 외우고 다녔는데, 이젠 수첩에 적어둔 것도 까먹곤 하는데요. 올해는 또 얼마나 깜빡깜빡할지 걱정입니다. 20대의 기억력을 되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건강증은 '현대인의 동반자'와 같은 증상입니다. 과거보다 발병율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서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과도한 정보'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멀티태스킹', 디지털 기기 활용으로 두뇌 활용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디지털 치매' 등이 꼽힙니다. 대부분 관리하면 개선되지만, 방치할 시에는 건강증에서 치매로 발전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분 만에 알아보는 기억력 TEST

01
아래 문장을 읽고 머리에 새겨둡니다.
“나는 오늘 출근길에 튼튼한 신발을 신고 지하철에 올랐다”

02
30초간 아래 12개 단어를 기억한 후, 빈 종이에 기억한 단어를 적어주세요.
안경 / 휴대전화 / 칫솔 / 포크 / 화장지 / 사탕 / 매직 / 양말 / 사과 / 수저 / 불펜 / 인형

주의사항
외우는 동안에는 쓰지 않는다 | 글자를 적는 시간은 30초 이내 | 0~2개 : 0점, 3~5개 : 2점, 6~9개 : 3점, 10~12개 : 5점

03
5초간 아래 그림을 본 후, 빈 종이에 왼쪽부터 순서대로 색깔을 적어주세요.

0개 : 0점, 3개 미만 : 2점, 4~5개 : 5점

04
맨 위의 문장을 적어봅시다.

적을 수 있다 : 5점 적을 수 없다 : 0점

결과

12~15점 - 튼튼 기억력 소유자	7~10점 - 아직은 정상 범위!
4~5점 - 경도 인지 장애 의심	2점 이하 - 위험!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멍 때리기로 기억력을 회복하는 습관

멍 때리기를 하면 뇌 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가 활성화돼 뇌를 최상의 상태로 정착시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멍 때리기의 효과를 배가하는 올바른 방법을 따라 하는 게 좋다.

1. 벽에 기대 상태에서 쿠션, 베개를 허리에 받쳐 127° 정도로 몸을 뉘인다.
2. 눈을 감고 최대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3. 10분 가량 온몸의 긴장을 풀고 누워 있다.
4. 졸리면 자도 좋다.



멍 때리기 최적화된 ASMR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음식 list

블루베리 	고등어 	녹차 	다크초콜릿
베리류 과일은 뇌 신호가 보다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기억력을 높여 주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증 증세에 효과적이다.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2분의 컵 정도 먹으면 도움이 된다.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는 육류보다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게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더 좋다. 특히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 주의력 결핍 장애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차는 채취한 신선한 찻잎을 고온 가열해 잎 속의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시킨 후 비비고 말리고 정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쳐 만들어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스위스 바젤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녹차는 두뇌 부위간의 상호연결망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 인지기능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다크초콜릿은 뇌로 혈액 공급을 늘려주는 플라보노이드를 지니고 있다. 혈액 순환 이상은 뇌 손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방지해 줄 수 있다. 당분이 너무 많이 함유된 초콜릿은 오히려 혈류에 방해가 되므로 카카오 함량 72% 이상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

Monthly Magazine of KEPCO

KEPCO

45

ON AIR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

46

KEPCO 버스킹
지금은 여행을
준비할 때!

47

간식비를 쓴다!
'땅끝'에서 보내온
행복의 에너지

48

人STAR★GRAM
이제 곧 봄이 찾아올 거예요!
희망의 빛을 전하다

50

구독의 이유
우리집을 찾아온
'쇼핑 쿡쿠르'

On Air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자기표현

김영하



QR코드를 찍으면 강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 예술가였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놀이 방법을 만들었고, 느끼는 바를 자유롭게 춤으로, 그림으로,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점차 그 능력을 잃어갔다. 소설가 김영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린 예술가를 소환하라고, 우리가 살며 갖게 되는 다중의 정체성 중 하나만이라도 예술가가 되게 하라고 권한다. 최근 10년 새 소설 미디어 등 다양한 표현의 도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TEDx서울'을 통해 공개된 이 강연의 메시지, 곧 '자기표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거라는 주장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다.

전력용어 퀴즈

다음의 전력용어가 어떻게 순화 되었는지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 블랙아웃 → ()
전기가 부족해 갑자기 모든 전력시스템이 정지하는 현상
① 부분정전
② 일부정전
③ 대정전
- 절체 → ()
부하의 일부분을 다른 선로로 돌려 공급하는 것
① 용접
② 전환
③ 순환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지난호 정답
1) ② 2) ①

당첨을 축하합니다!

퀴즈 당첨자

- | | |
|----------------------|----------------------|
| 오세원 (강원본부 정선지사) | 김경태 (안전보건처 산업안전실) |
| 전기영 (부산울산본부 동울산지사) | 이선길 (경남본부 전력사업처) |
| 오양환 (광주전남본부 강진전력지사) | 최가람 (경기본부 평택전력지사) |
| 이영숙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 서경민 (남서울본부 전력관리처) |
| 김신영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 강성울 (경북본부 문경지사) |
| 소영수 (전북본부 김제전력지사) | 이다은 (광주전남본부 장성지사) |
| 박재민 (경기북부분부 고양전력지사) | 김혜정 (강원본부 현장피해지원대책반) |
| 오경택 (서울본부 노원도봉지사) | 김준근 (충북본부 전력관리처) |
| 홍성철 (해외사업관리처 바이롱사업부) | 이민숙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관리처) |
| 구인회 (인천본부 영종지사) | 정찬국 (설비진단처 설비분석부) |

설문조사 당첨자

- | | |
|-------------------------|----------------------|
| 김인건 (서울본부 마포용산지사) | 김재연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력관리처) |
| 백유나 (경인건설본부 구조건설실구조설계부) | 김재관 (부산울산본부 남부산지사) |
| 유재섭 (기술기획처 기술사업화실) | 김현진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령지사) |
| 황연미 (전북본부 전력사업처) | 홍준영 (제주본부 전력공급부) |
| 전재찬 (ICT운영처 경영ICT운영센터) | 장은지 (경북본부 전력관리처) |

지금은 여행을 준비할 때!

전나임

한전공대설립단 설립총괄실 차장

KEPCO 버스킹

2021 MARCH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나서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요즘 주위에서 자주 듣고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금방 사그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바이러스는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변에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씩은 꼭 외국을 나가야 하는 사람부터 마치 인생의 목적이 여행인 것처럼 월급을 모아 여행에 쏟아붓는 삶을 반복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마음껏 여행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마치 감금이라도 당한 것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런 이들의 마음을 공략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 여행상품의 예약을 받고, 착륙지 없이 영공만 선회하고 돌아오는 '무착륙 비행' 상품도 있습니다. 기내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여행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인 듯합니다.

저도 올해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고 나니 더욱 갈증이 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여행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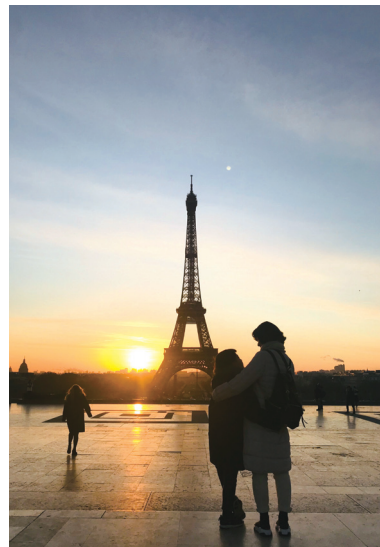
우리는 왜 여행을 좋아하는 걸까요? '면세점과 라운지가 좋아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 새로운 경험이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행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떤 경험을 할지 계획을 세울 때 그 설렘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떨림은 마치 사랑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여행이 좋은 이유의 절반은 떠나기 전, 그 설렘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곧 백신을 맞고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며, 지금부터 필요한 경비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칼퇴근하다 코로나가 '땡'하고 끝나면 바로 튀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갈 곳을 정하는 것부터 '고민의 즐거움'은 시작됩니다. 맛집을 검색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과 글도 살펴보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면 여행의 설렘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곳의 역사도 공부해 보고 온라인으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루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려보는 것입니다.

재작년 아들과 단둘이 떠났던 여행이 가끔 생각납니다. 함께 가고 싶은 곳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행은 떠날 때가 아닌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행의 설렘을 만끽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여행을 준비할 때입니다.



'땅끝'에서 보내온 행복의 에너지

신수아

해남지사 고객지원부

간식비를 쓴다!

2021 MARCH



안녕하세요. 땅끝 해남지사 고객지원부 신수아입니다.

저희 해남지사에는 입사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막 지난 제가 창구에서 '왕고'라고 불릴 정도이지만, 사업소의 업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들의 도움과 헌신 덕분입니다.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저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정숙은 대리님! 간식을 지원해주신 월간 KEPCO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 대부분은 이곳에 연고가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끈끈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 경비견 든든이까지 든든하게! 제 뒀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오지라면 오지인 땅끝 해남, 첫 발령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해남지사가 신입 직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첫 발령지로, 기성 직원들에게는 가장 특별했던 사업소로 영원히 가슴에 남았으면 합니다.

이제 곧 봄이 찾아올 거예요!

희망의 빛을 전하다

겨울의 막바지, 한전인들의 꾸준한 하루하루는 계속된다. 희망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Participate *Join*

이 코너는 KEP-CN과 KEPCCO-EP 사업소 소식에서抜해하여 게재됩니다. 사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사진 보내실 곳 : dasom.shin@kepcco.co.kr
문의 : 061-345-3128

kepcco 광주전남본부



우리 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또한, '복나눔' 행사를 통해 빵과 커피를 직원들과 나누어 먹으며, 안전하고 청렴한 본부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아자아자!

#광주전남본부 #안주고 안받기 #새해복 #복나눔 #청렴한전

kepcco 사천지사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우리 사천지사는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생필품을 지원했다. 사천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특히 높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들을 찾아뵙며 따뜻한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사천지사 #이웃사랑 #나눔실천 #따뜻한겨울

kepcco 강서양천지사



강서양천지사(화곡본동시장, 크로스!) 우리 사업소는 화곡본동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시장을 찾아 개편된 전기요금 제도를 안내하고, 15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해 아동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봄을 맞아 활기차고 정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나들이 다녀와 보세요~

#강서양천지사 #자매결연 #화곡본동시장 #전통시장 #지역사회

kepcco 경기본부



드론,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우리 본부는 전력설비 점검에 초소형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본부 내 회사 사옥이나 지자체 복지시설의 태양광모듈을 진단하고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드론의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사업모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본부 #드론 #어디까지 활용해봤니 #전력설비점검 #무궁무진한 가능성

kepcco 전력수급처



한국환경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공동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사 직원들의 제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해 온실가스로 감축하고 현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우리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력수급처 #탄소포인트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일석이조

kepcco 충북본부



충북본부는 지역 내 피해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아동학대 피해보호시설인 충북아동청소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협의회에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총 19개 기관 중 우선 3개 기관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관에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본부 #아동보호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kepcco 고성지사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해 고성지사가 전통시장으로 나섰다! 천년고성시장과 거진항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요 전력설비를 점검하고, 노후설비에 대한 안내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창지사가 될 것을 다짐해본다!

#고성지사 #안전한 전통시장 #안정적 전력공급

kepcco 경북본부



우리 본부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 직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을 시행했다. 직원들이 직접 강의 자료를 제작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홈페이지에도 개시될 예정이니 취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북본부 #취준생 #취업꿀팁 #자소서작성법 #면접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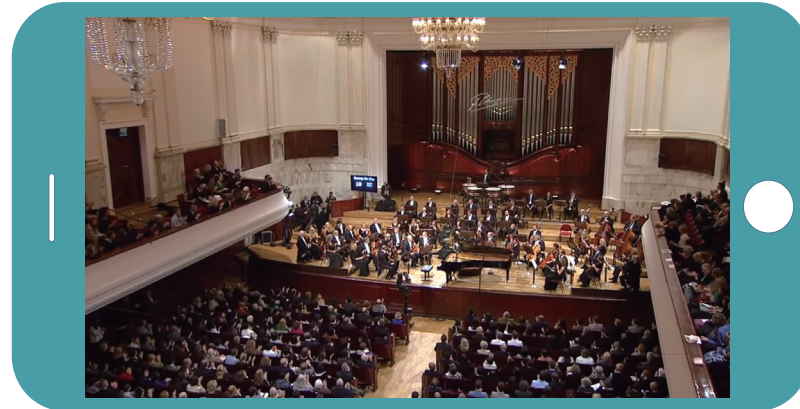
구독의
이유2021
MARCH

우리집을 찾아온 '쇼팽 콩쿠르'

피지육 ICT운영처 ICT응용기술부

SUBSCRIBE

귀호강 지수 ★★★★★



쇼팽 피아노 콩쿠르 공연장 실황 모습

여러분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팽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폴란드에서는 쇼팽의 이름을 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5년 주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쇼팽의 기일인 10월 17일 전후 3주에 걸쳐 개최되는 대회이며,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짐 없이 개최되었네요.

클래식 음악 및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역시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피아니스트들이 이 대회를 거쳤고, 많은 입상자도 배출하였는데요.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당타이손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2015년 대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어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 반열에 올랐는데요. 국립 쇼팽 인스티튜트(Fryderyk Chopin Institute)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 중 유일하게 천만 조회 수를 자랑하는, 그가 결승 라운드에서 연주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동영상도 백미로 꼽을 수 있겠네요.

한국인 입상자에 대한 에피소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형제가 공동 3위를 수상한 2005년 대회에서는 임동혁이 마지막 결선 연주 이후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가 이상하다며 이의 제기를 하였고, 황당하게도 피아노 조율기구가 피아노 안에 그대로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는 강력히 항의하였던 장면도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피아니스트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연주로 경합하는 쇼팽 피아노 콩쿠르를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다행스럽게도 폴란드의 국립 쇼팽 인스티튜트(Fryderyk Chopin Institute)는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2015년 대회, 2010년 대회의 모든 라운드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클래식 스타가 된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가진 여러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대회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는데요. 다가오는 4월, 16명의 한국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모이는 16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예선에 참가하고, 이 중 80명만이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장에 가기 어려워진 요즘, 유튜브를 통해 피아니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집에서 편안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5년 대회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결승 라운드에서의 연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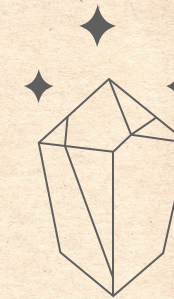
2015년 대회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각 라운드 연주 실황을 담은 앨범자켓

힐링 메시지



*The best is yet to be,
The last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의 출발은 그것을 위해 있었으리.



Robert Browning

19세기 활동한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랍비 벤 에즈라(Rabbi Ben Ezra)>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삶을 종종 찾아오곤 하는 행운과 불운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힌트가 되어주기도 하는 문장이죠. 이제 힘든 일은 다 지나갔고, 앞으로는 기쁜 일들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자신감도 생겨날 것입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이 세상을 다시금 깨우는 시기, 기대보다 훨씬 좋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사 힘든 일이 또 찾아온다 해도 이전보다 건강해진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